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4면)

송파구의회, 제335회 임시회 개최

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는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



손병화 송파구의회장

정으로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이희승, 최옥주, 유미현, 박지효, 전정, 박지선, 이혜숙 최상진 의원)을 시작으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연이어 처리됐다.

구의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각 의안 심사를 진행하고,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뒤,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사에 나선 손병화 의장은 울곡 이이의 「동호문답」에 나오는 사자성어 '방기곡경(旁岐曲逕, 곧은길을 놔두고 굽은 길로 간다는 뜻)'을 언급하며, "바른길을 마다하고 꾀수를 택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바른길을 택하는 것이 오래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의 속도가 아니라 판단의 깊이이며, 안일한 타협보다는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 쌓은 신뢰가 현안을 풀어가는 가장 든든한 해답"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조례안 심사 그리고 다가올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실한 시간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올해도 채 100일이 남지 않은 만큼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고, 내년도 청사진 역시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